

광주시-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함께 찾는다

소각장 입지선정계획 공고 광역시 최초 '先 자치구 신청' 내달 30일까지 후보지 접수 "친환경 건립...인센티브 지원"

광주시가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구와 함께 입지 선정 작업에 본격 나선다.

광주는 22일 누리집(홈페이지)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광주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이번 광주자원회수시설 공모는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광주시가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9월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

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지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안내서 등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톤/일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면적은 시설 확장성

과 편익시설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과 추가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부지에 대한 자체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계

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오는 28일까지 이메일(8bangminam@korea.kr)로 접수받아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시설로 건립된다"며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코로나19 선제 대응 3억원 긴급 투입

취약시설에 방역물품 배부

전남도가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약 3억원을 투입,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배부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요즘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비록 낮으나 재확산되는 추세로, 전남은 타 지역보다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가 많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기저질환자가 많은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이에 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 약 3억원을 긴급 편성,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즉시 구입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778개소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 중 중증환자 발생 시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이송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이동이 많은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도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대학생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시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2회 대학생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주제는 사회적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실현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기술 등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이다.

광주지역 대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팀(2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회문제 적합성 △사회적가치 우수성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을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분야별 우수상 12팀 등 총 15팀을 선정한다.

대상은 광주시장상과 부상(120만원 상당), 최우수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장상과 부상(80만원 상당)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분야별로 각각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상과 부상(20만원 상당)이 주어진다. 수상자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인중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 및 공고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062-531-6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지역청년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광주지역 5개 대학(전남대·조선대·조선이공대·호남대·광주대)은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전남도가 오는 9월11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 다소비 품목 음식점 66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 중점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에선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상태와 오염 가능성을 진단하고, 현장 설정에

맞는 실질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법적 서류 구비 여부 △개인위생 △조리설비·도구 △조리과정 △보관 과정 △작업장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또한 음식점소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 등을 알리고, 항균도마·니트릴 장갑, 물티슈 등 각종 홍보 물품도 배부한다.

오지현 기자



남구자원봉사센터 온정 꾸러미

반정환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자원봉사자들이 22일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상생의 정을 나누는 '온기 모아 온정 꾸러미' 나눔 활동을 위해 전복죽 등 식료품과 치약 등을 포장하고 있다. 이날 제작된 온정 꾸러미 400개는 식료품, 공산품 등 12가지 품목으로 남구 관내 17개 자원봉사캠프에서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배 기자

광주시-중 남방항공 "무안공항 활성화 협력"

전세기 취항·관광 분야 등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왕선 중국 남방항공 한국지사장을 접견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과 왕 지사장은 이날 광주시 관광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 노선 신설 및 전세기 취항, 지역 항공학과 인재 채용 등을 논의했다.

남방항공은 1991년 설립된 중국 3대 국영 항공사 중 하나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40개 항공사 중 세 번째로 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남방항공 한국지사는 1994년 설립돼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왕 한국지사장은 "지난해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의 광주 방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

겼다"며 "광주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문화 예술 도시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광주시의 문화예술, 관광 사업 활성화 등 국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관광객과 광주·전남에 있는 기업체, 중국유학생들의 항공이용편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복항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중국 국영 3대 항공사이자 광주시와 자매도시인 광주우에 분사가 있는 남방항공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광주는 맛·맛·의의 고장으로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스토리가 많은 매력적인 도시다. 또한 관광매력 요소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등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기

위야 한다"며 "남방항공과 힘을 모아 문화 예술, 의료관광 분야에 많은 이벤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월7일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에도 협력한다. 왕 지사장은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남방항공을 알리고 브랜드 마케팅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중국 광저우에서 관광객 유치에 대해 광저우 3대 여행사와 광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8·10일 중국 저장성에서 한·중 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내달 9일까지 '2024년 사회조사'

삶 만족도 등 9개 부문 64개 항목

광주시는 '2024년 광주시 사회조사'를 23일부터 9월9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광주시 사회조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해 향

후 정책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광주지역 표본 4905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 가족, 보건과 건강,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소득소비 자산, 안전, 환경, 정보와 통신, 자치단체

특성 등 9개 부문 64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부재 또는 응답자 요청때 '응답자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24년 광주 사회지표' 책자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표하고, 사회개발 정책수립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학교 등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